광주 상무중-치평중 통합추진 무산

학부모 대상 ARS 설문조사 과반 못미쳐

사회적 논의기구 회의서 중지 결정

광주시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의 하나로 추진해 온 상무중과 치평중의 통합이 무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두 학교 학부모 619명을 상대로 통합 찬성여부를 물은 ARS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통합 논의를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두 학교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주민대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 학교 학부모의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했고, 사회적 논의기구는 31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논의가 중단되면서 시교육청과 광주 서구청이 잔여부지에 추진하려던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물 건너갔다.

당초 시교육청과 서구는 두 학교를 통합하고 잔여부지에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최두섭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은 이날 통합 논의 중단을 알리면서 "학부모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두 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로체험센터는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진로정보 및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적정부지를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두 학교 통합 논의가 재개될 여지는 남겨뒀다.

최 과장은 "두 학교가 붙어 있고 학생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며 "2017년 통합논의가 한차례 무산됐다가 올해 다시 논의가 진행된 것처럼 여건이 갖춰지면 (통합논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무지구 개발에 맞춰 문을 연 상무중(1985년 개교)과 치평중(1991년 개교)은 개교 초기 각각 30개 학급 1819명, 29개 학급 1645명 규모였다.

이후 꾸준히 학생수가 줄어 2019년 현재 13개 학급 291명(상무중), 15개 학급 360명(치평중)의 소규모학교로 전락했다.

두 학교는 담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시설공단 근로자들, 임금소송 패소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선희 판사는 A씨 등 16명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 등은 과거 광산구에 위치한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해오던 중 2014년 7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자 1년 후 공단에 고용승계돼 계속 근무를 진행했다.

A씨 등은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4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공단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2014년도 연차수당을 모두 선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 등의 주장에 반박했다.

법원은 "증거를 살펴보면 A씨 등이 업체에서 공단으로 고용승계될 당시 업체가 연차수당을 선지급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업체의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 10월 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참관인들이 '전면재수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5·18 추모탑 표절 아니다"…'혐의 없음' 송치

경찰이 5·18민중항쟁 추모탑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18추모탑 표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동일 부산대 미술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6월10일 "국립 5·18민주묘지에 있는 5·18민중항쟁 추모탑이 자신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고소장 등에서 1995년 조형물 공모전 대리접수를 위해 건축사무소 업자에게 건넨 투시도를 추모탑 원작자로 알려진 작가가 베꼈고, 이를 뒤늦게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에 당시 5·18추모탑 형상공모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추모탑 조각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표절을 확신하게 돼 조각가와 관련 건축사무소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조각가에 대한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고, 이 과정에서 이 교수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6월부터 수사를 벌여 표절 혐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던 중 해당 교수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부산경찰이 진행한 건축사무소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탑은 1995년 '5·18묘역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상징물로 1997년 5월16일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돼 설치됐다.

여수 도심 아파트에 멧돼지…포수가 사살

여수시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가 출동한 포수에 의해 사살됐다.

지난달 31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22분쯤 여수시 소호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은 주민의 안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진입, 포수와 함께 수색에 들어갔다.

잠시 후 발견된 멧돼지는 포수에 의해 사살됐으며,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멧돼지는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 달려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멧돼지와 맞닥뜨리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절대 삼가야 한다"며 "멧돼지를 발견했을 때는 멧돼지의 예민한 후각을 고려해 바람을 등지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옥상 불…인명피해 無

지난달 30일 오후 1시13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서 비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실외기가 전소됐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원 앞을 지나던 한 행인이 "옥상에서 불이 나고 있다"고 직원에 알렸고, 직원이 즉시 옥상에 올라 소화기로 초동대처를 하며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전선 손상 등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PC방서 주인 폭행 40대 경찰관도 폭행

술에 취해 경찰관과 PC방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PC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업주 B씨(51)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PC방에서 업주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했고 B씨가 퇴실을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C순경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상습 폭행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와 탐문을 보강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강간·강간미수 등 40대 남성 검거

하룻밤새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까지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도와 강간·강간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오후 8시25분쯤 남모씨(43)를 검거한 뒤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30일 오전 2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주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났고, 3시간쯤 뒤에는 중랑구에 있는 한 분식집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시도했다. 성폭행에 실패하자 그는 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하고, 현금 7만원가량을 훔쳐 도망쳤다.

그는 이후 경기 구리시에서도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고, 실패에 그치자 피해 여성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남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남양주시 덕소의 한 음식점에서 남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및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